







작가의 말

늘 똑같은 일상에 지루함과 따분함을 느낄 때, 여러분을 싹싹 마을로 초대합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투명 골목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 골목에 들어선다면, 싹싹이와 함께 파란 물약을 마시고 투명해지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 좋고, 잠시 그대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싹싹이와 친구들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테니까요



싹싹이와 신기한 골목의 비밀 (우리 이제 그림책 작가 6)

발행일 2025. 11.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독서문화과
 글·그림 구지혜
 지도작가 고진이

[비매품]

* 이 책은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2기의 결과물로
 민들레작은도서관 「그림책 창작동아리 우리 곧, 작가」 활동으로 만든 그림책입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전자책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ISBN 979-11-94496-77-9(PDF 전자책)

ISBN 979-11-94496-71-7(세트)



전자책 읽기



우리 이제 그림책 작가 6

씩씩이와 신기한 골목의 비밀

글·그림 조재희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씩씩하고 모험심 가득한 강아지 씹씹이가 씹씹 마을에 살았어요.
"마을 이름이 내 이름과 같다니 정말 마음에 들어!"





A cartoon illustration of a dog with large brown ears and a white face, looking towards a red brick wall. The dog has a speech bubble above it containing Korean text. The background is a bright yellow sun against a blue sky. The dog is standing on a grey, textured ground.

왜 아무도
안나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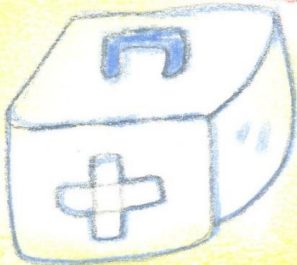


씩씩 마을에는 한 번 들어가면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다는 소문의 골목이 있었어요.

"이 골목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왜 아무도 안 나오는 걸까?"

"좋아! 준비는 철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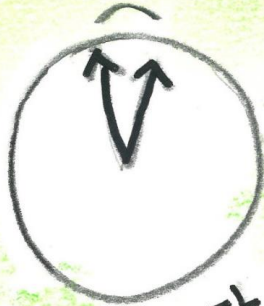
"바쁘다 바빠"



"구급상자, 손전등... 아! 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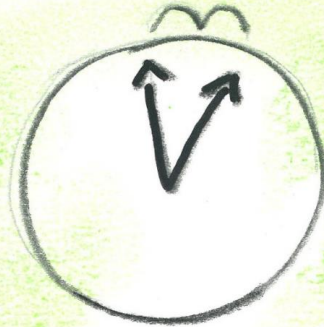
그런데 씹씹이는
너무 조심성이 많아서
가방을 싸는 데

짜깁깁 짜깁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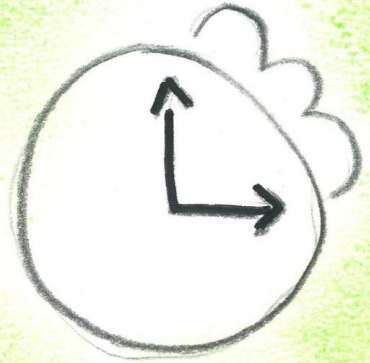
1시간

한 시간,



2시간

두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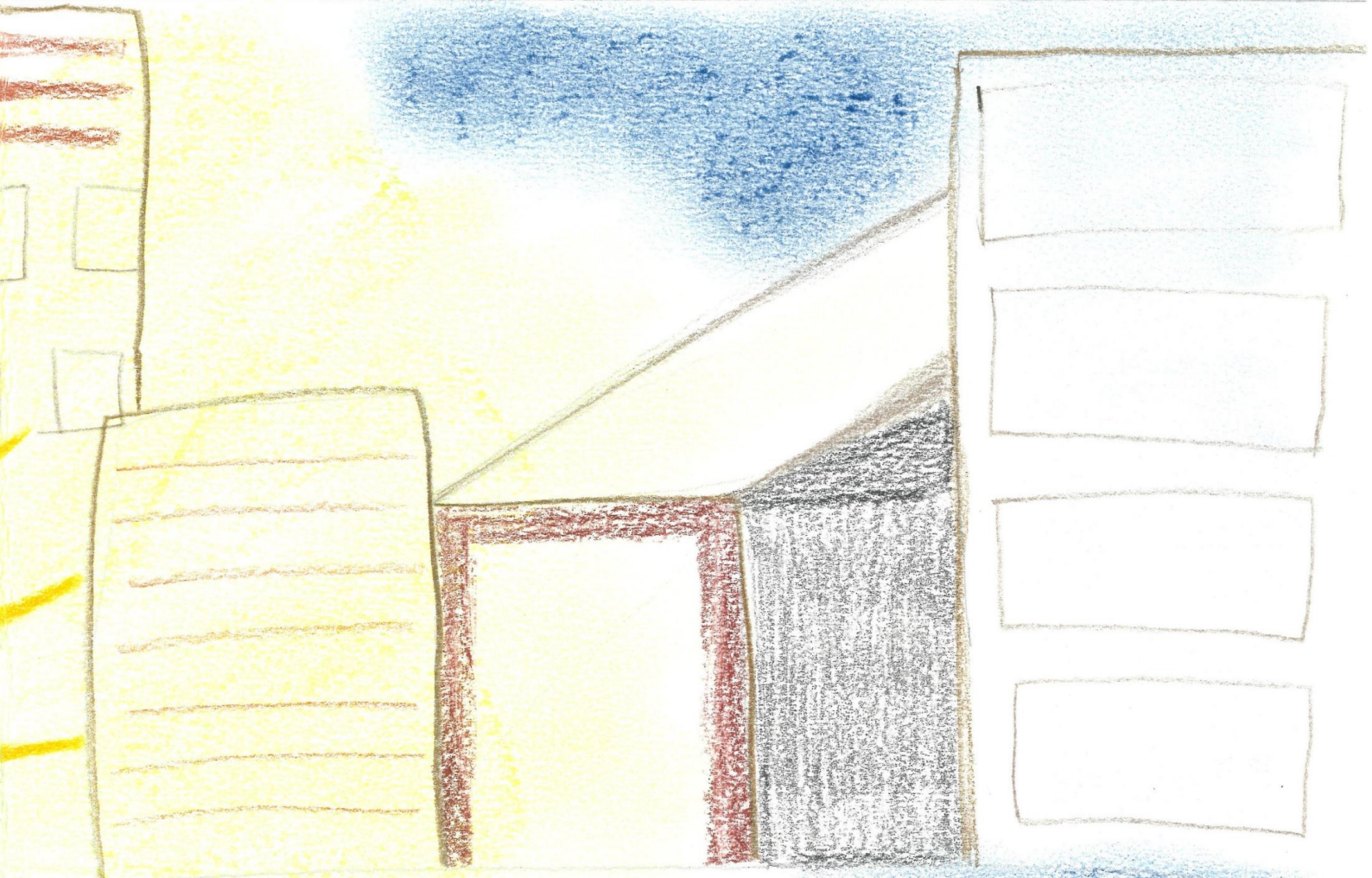
3시간

세 시간이나 걸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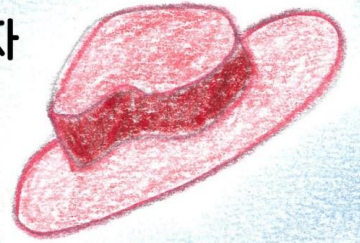
이
말
..
살
짜
크
어
둑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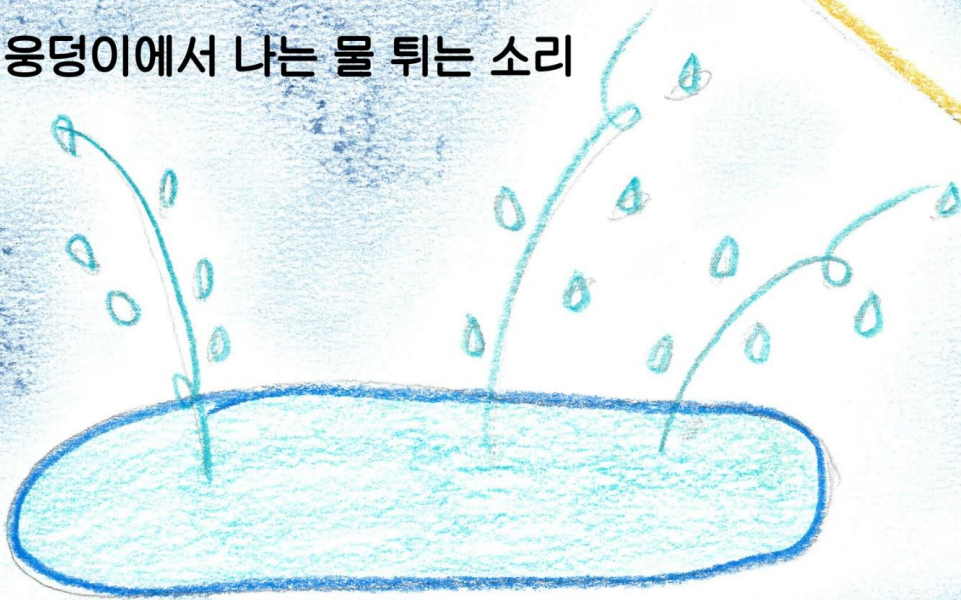
준비를 마친 씩씩이는 살짝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골목 안은 정말 신기한 일들로 가득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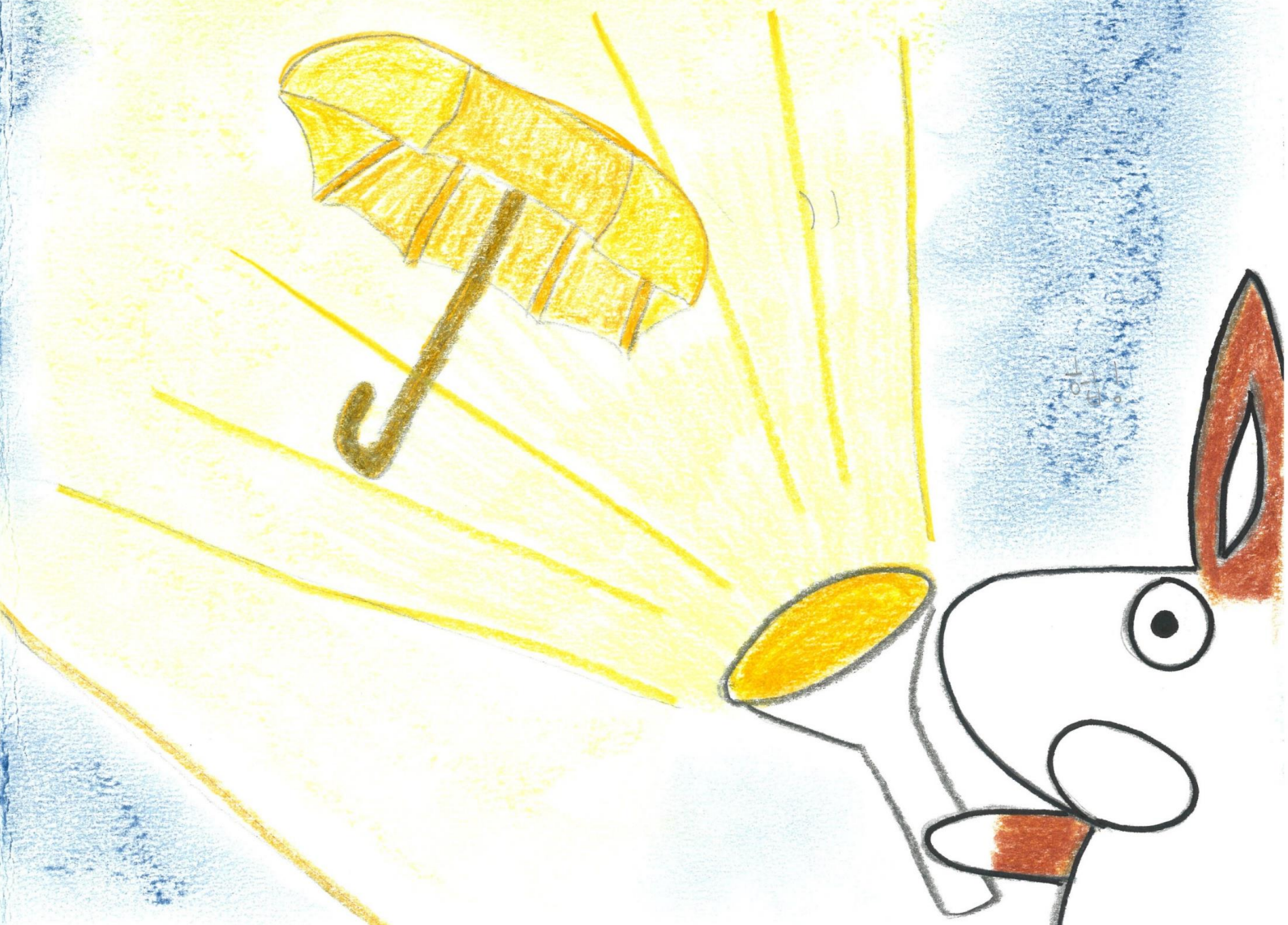
혼자서 빙글빙글 떠다니는 모자



물 고인 웅덩이에서 나는 물 튀는 소리



혼자 펼쳐지는 우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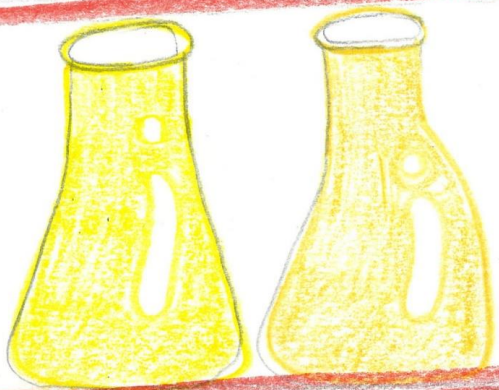


와! 예쁘다

씩씩이는 골목 한쪽에 반짝이는
신비로운 자판기를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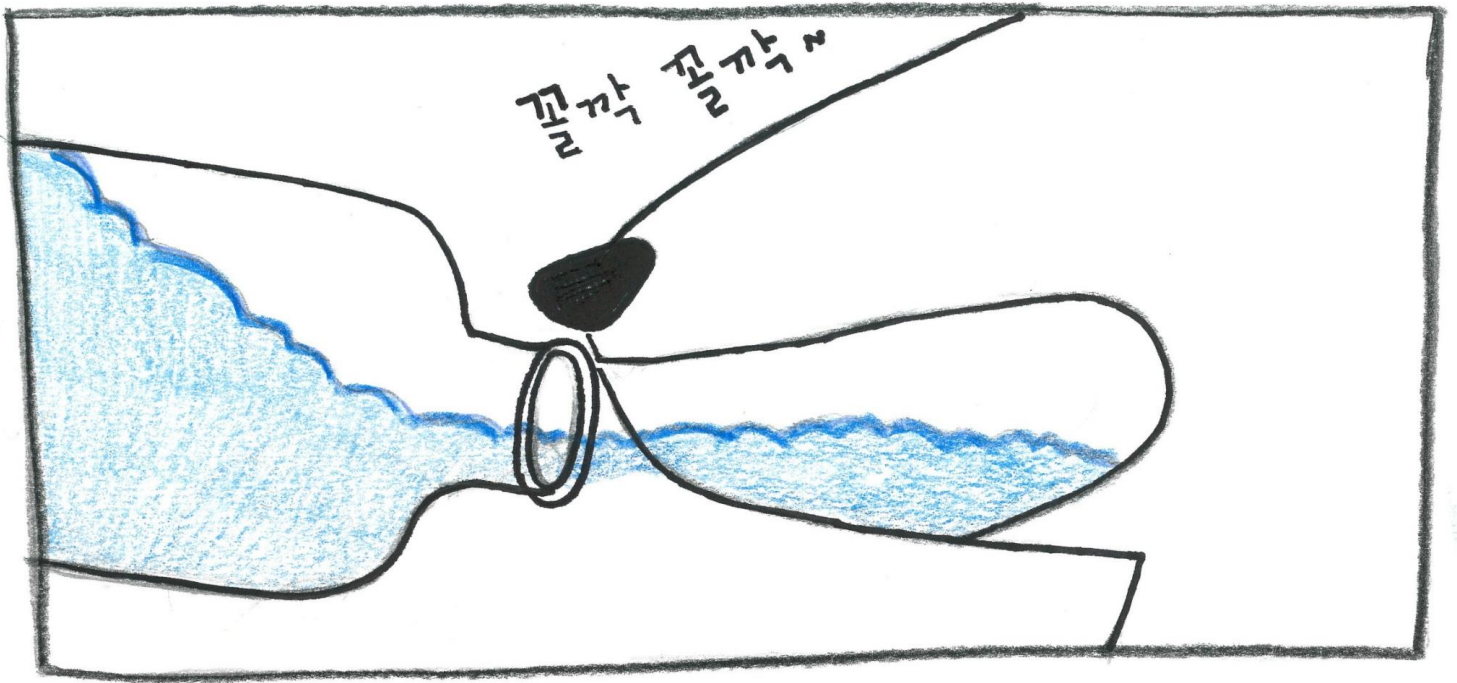
골목 안을 돌아다녀서 목이 몹시 말랐던 씹씹이의 눈에
자판기에 쓰인 작은 글씨가 들어왔어요.



'목마른 사람은 무료!'



질질 질질



목이 말랐던 씹씹이는 자판기에서 나온
파란 물약을 마셨어요.

um...



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어?!

물약을 마시자 싹싹이의 몸이 점점 투명하게 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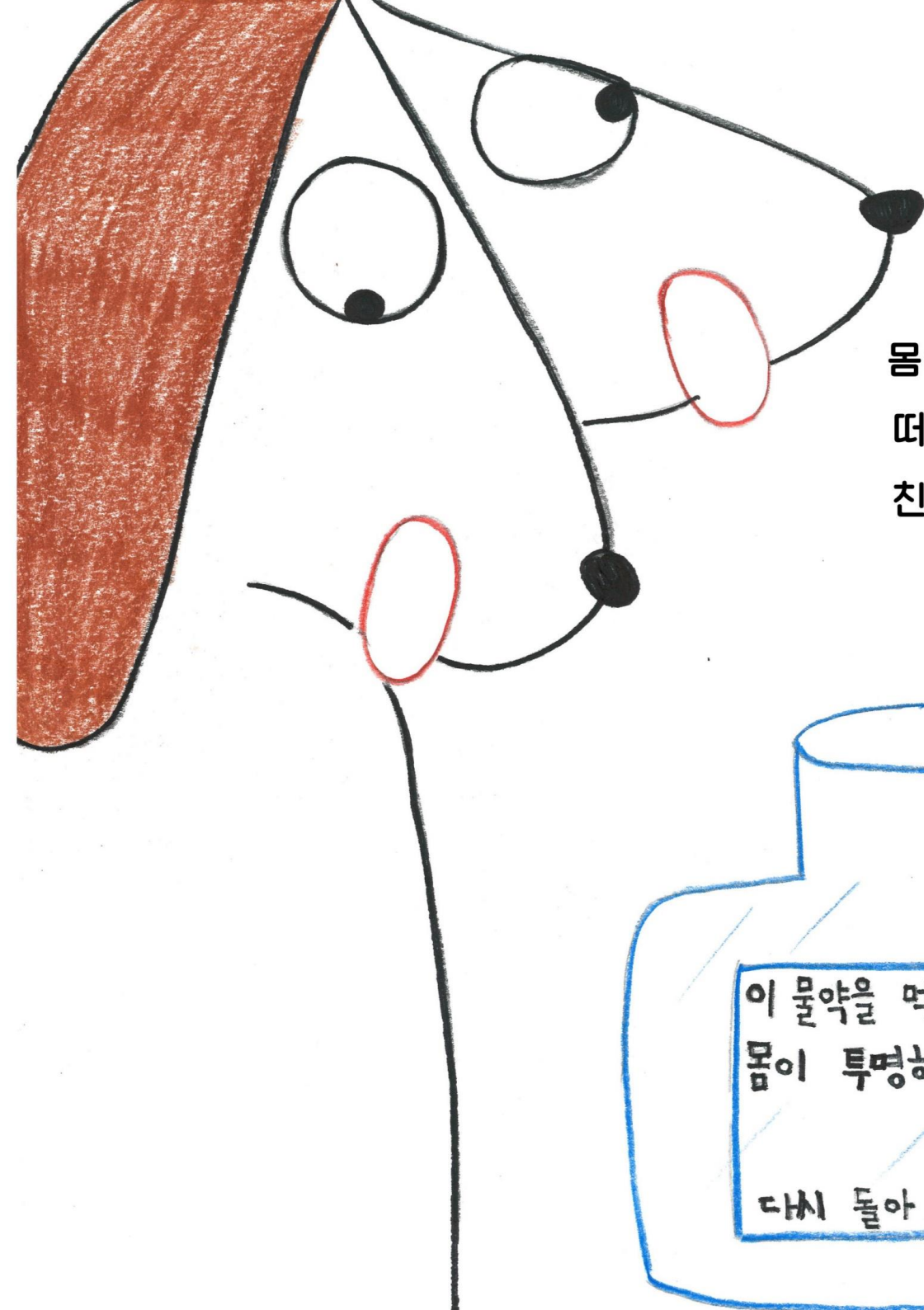


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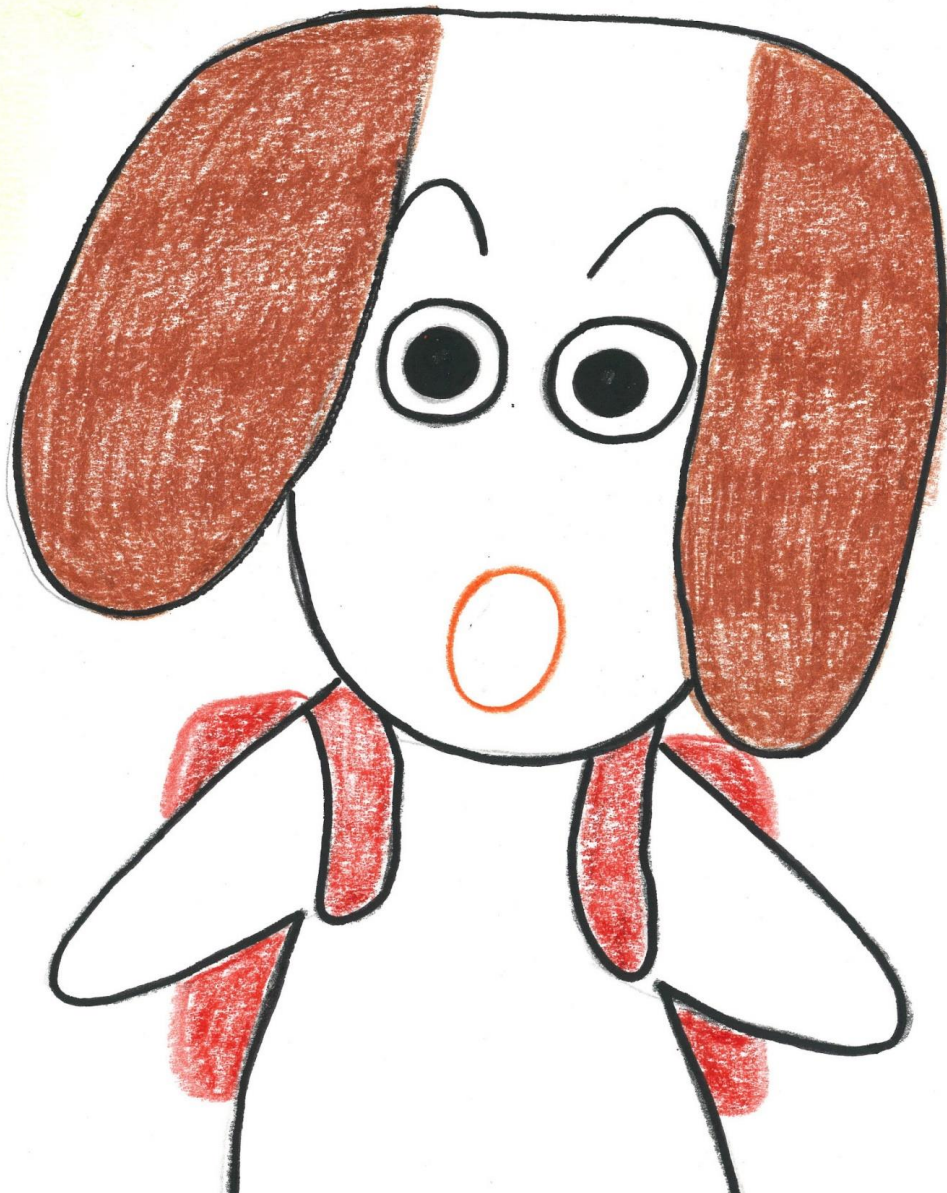
몸이 투명해지고 나자,
떠다니는 물건들 뒤에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물약을 먹으면
몸이 투명해 집니다
다시 돌아 오려면 ...



A HA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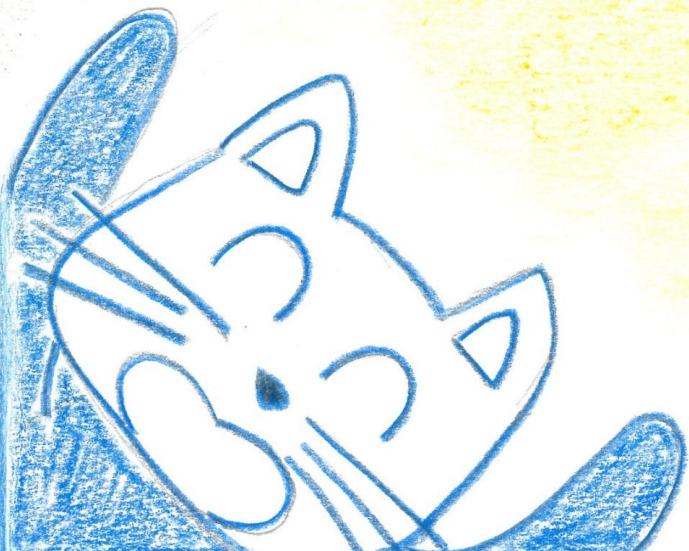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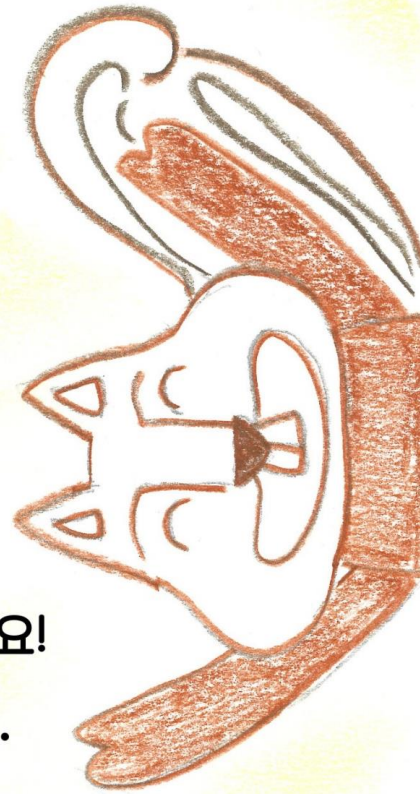


"아하! 그렇구나!"

씩씩이는 무릎을 탁 쳤어요.

골목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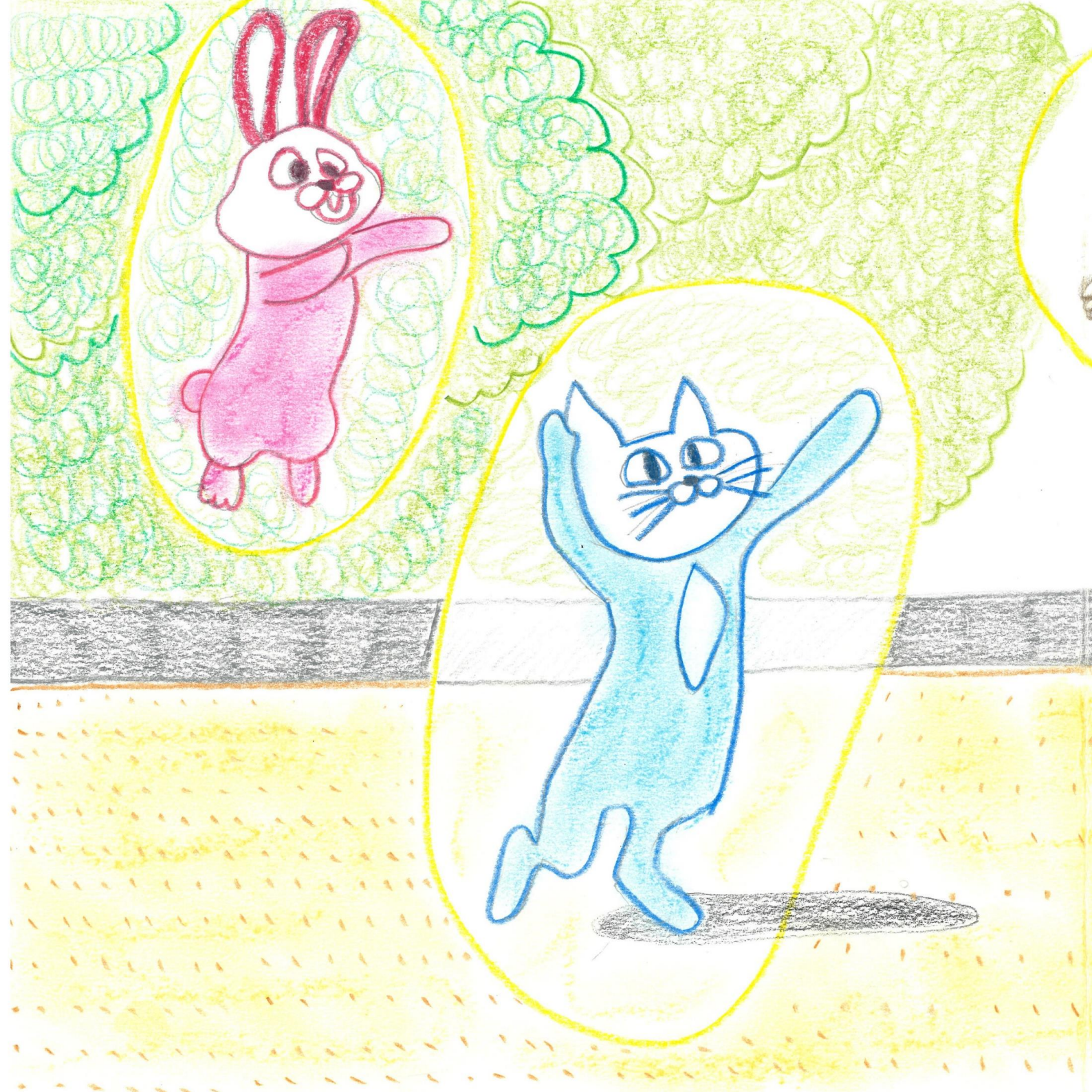
씩씩이는 골목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투명해진 식씩이와 친구들은
골목에서 신나는 투명 파티를 열었어요.
'깔깔깔' 웃음소리가 골목 안에 가득 퍼졌어요.







'이렇게 계속 투명하게 지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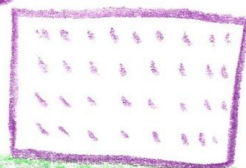
고민하던 씩씩이는 다시 자판기를 떠올렸어요.

'혹시 자판기에 뭔가 더 적혀 있을지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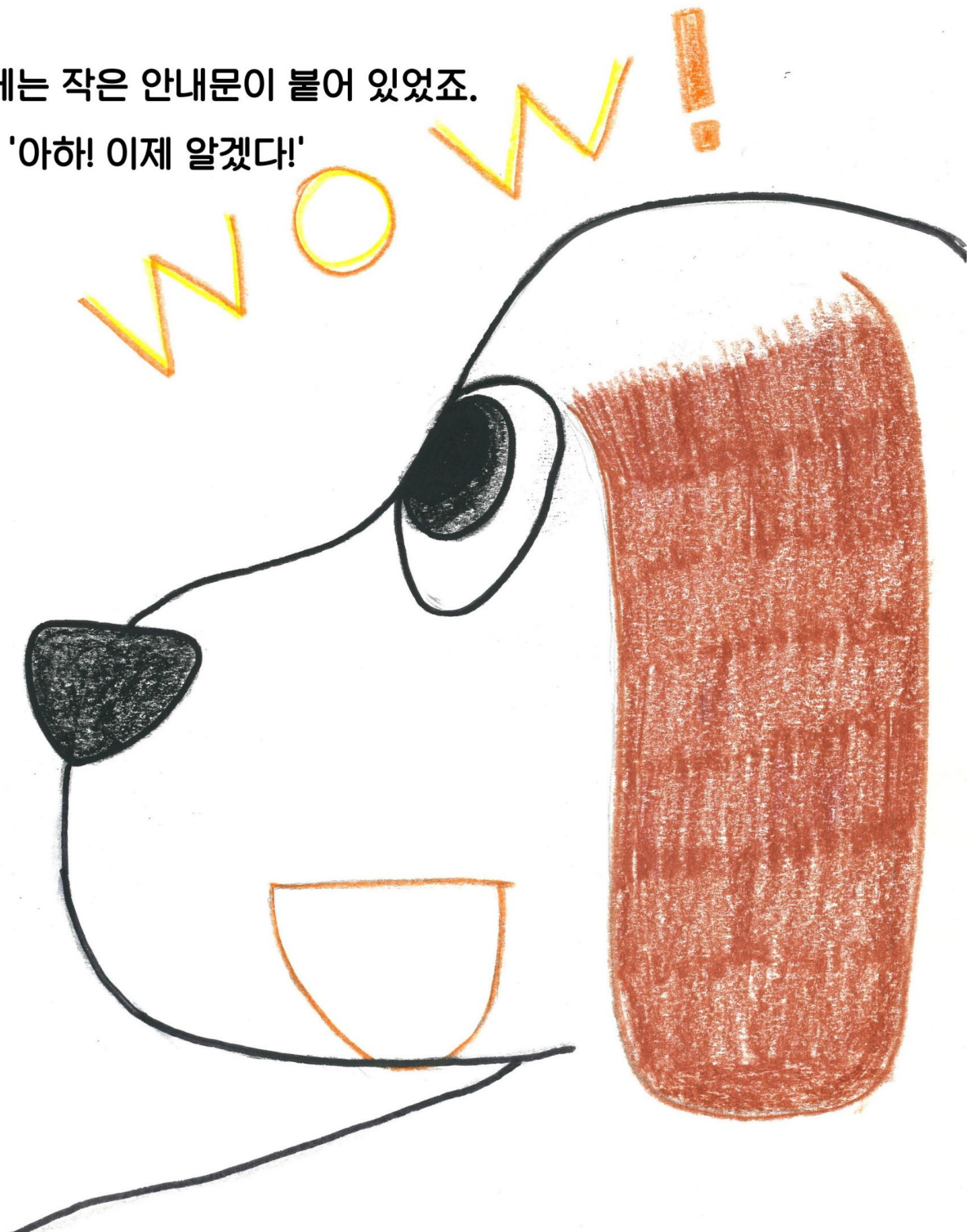
주문 사항 = 투명해진 몸을 다시
리고 싶다면 햇살이 가장 예쁜
지는 아침에 꽃잎 세장을 모아
주문을 외우세요 ♡ 주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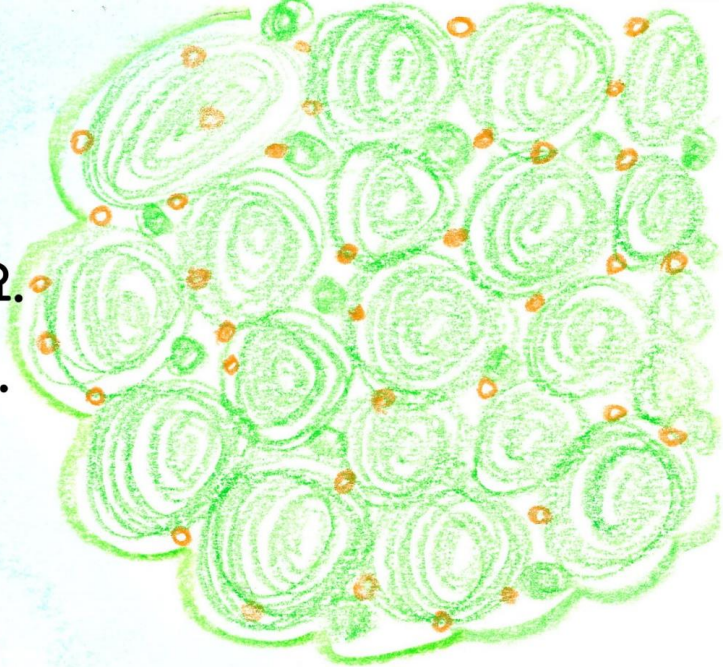
자판기 옆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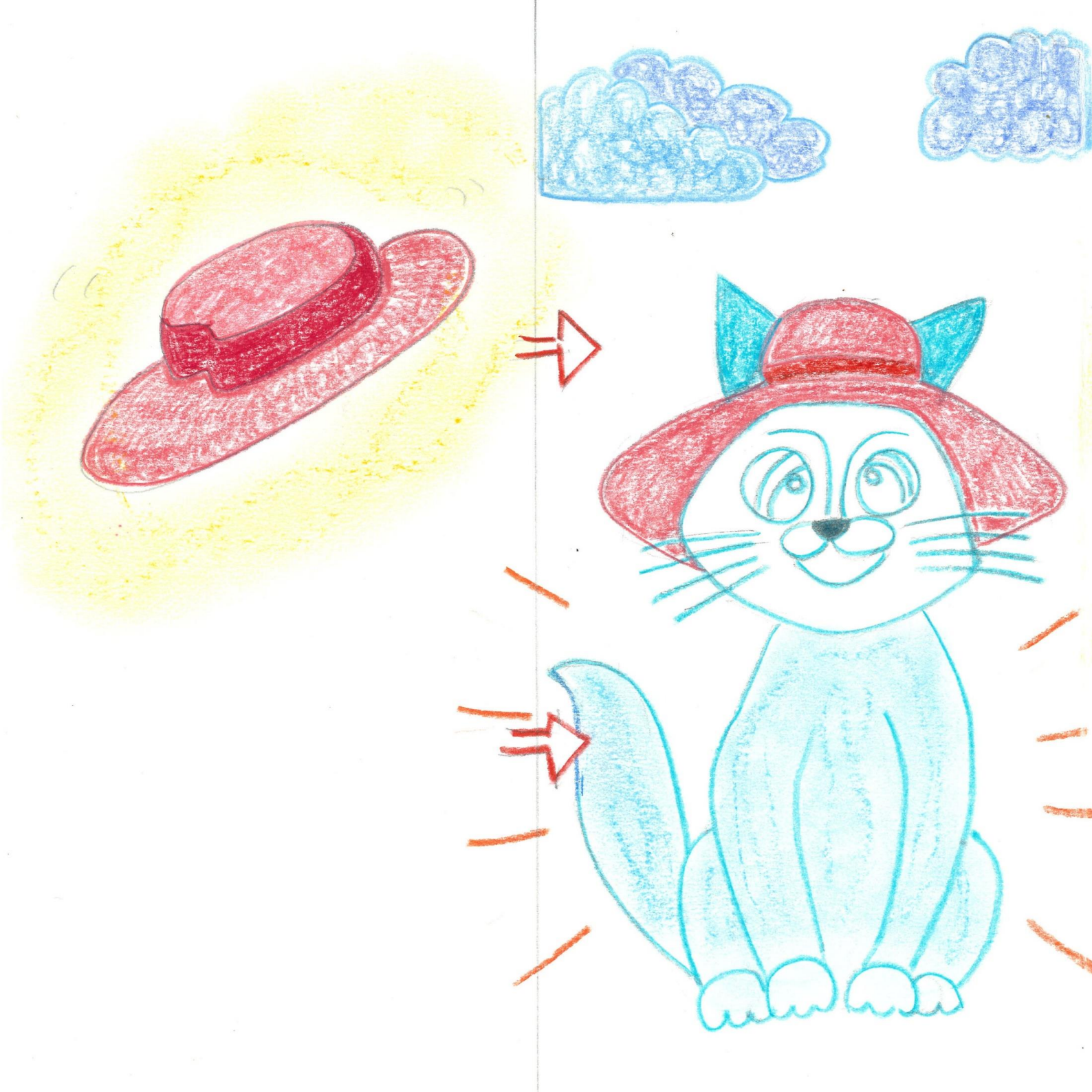
'아하! 이제 알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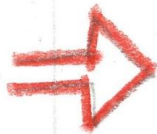


햇살이 예쁘게 쏟아지는 시간에
씩씩이와 친구들은 꽃잎 세 개를 모았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을 외웠어요.





주문을 외우자 쓱쓱이와 친구들의 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투명파

투명 골목에 대한 소문은 '사라지는 골목'이 아니라
'신나는 투명 파티 골목'으로 바뀌었어요.



티끌목



씩씩이는 정말 용감하고 지혜로운 강아지였죠?

씩씩이 덕분에 씩씩 마을의 투명 골목은
가장 재미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읽견쓰한다 <=

read walk write

안전은 **일** 권 **리** 습니다 <



전자책 읽기

